# 사람 키우는 일이 가장 큰 불사다

현불논단



준한 스님
서울 홍대선원 주지

발심한 한 사람이 수행자로 자라기까지, 그 곁을 누가 지켜줄 것인가. 'JustBe 승가장학회' 창립은 이 물음에서 시작됐다. 출가의 뜻을 낸 이들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고 배움과 수행을 이어가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뒷받침하자는 발원이다.

출가자 감소는 조계종단만의 고민이 아니다. 가톨릭 사제와 원불교 교무를 지망하는 이들이 줄어드는 현실에서도 보듯, 종교에 삶을 바치려는 이들이 줄어드는 현실은 종교계가 마주한 과제다. 그러나 출가자의 숫자만으로 불교의 미래를 말할 수는 없다. 스스로 수행하며 깨달음을 구하고, 그 지혜와 자비로 자신과 타인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의 삶이 출가의 본뜻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불교의 문으로 이끌 것인가가 아니라, 그 문을 연 이들이 어떤 수행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느냐이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불교도 많은 불사를 이뤘다. 천년고찰을 중창하고 국내외에 새로운 전법도량을 세웠다. 선배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가 원력으로 일군 소중한 삼보정재다. 이 도량들이 미래세대에게도 살아 있는 의지처가 되려면 그곳에서 수행하고 세상과 소통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제는 인재불사에 더 많은 정성과 관심을 기울일 때다.

**출가자 감소 시대, 성장 지원 더욱 절실**
**미래세대 수행자 돕는 승가장학회 창립**
**후학들이 원력 펼칠 바탕 마련 인재불사**

나는 미국에서 불교를 만나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접했다. 이후 수덕사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해 해인사 강원과 율원에서 전통의 기초를 배웠다. 그 과정에서 세운 중심은 늘 자기 마음을 바로 보고 삶에서 실천하는 일이었다. 전통을 잇는 힘도 그 근본정신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산중에서 도심으로, 다시 디지털 공간으로 만남의 경계가 넓어지는 시대다. 수행의 중심을 단단히 지키면서도 사람을 만나는 방편은 새로워질 수 있다. 홍대선원에서 게스트하우스와 참선 도량을 접목한 것도 그 때문이다. 여행길에 잠시 머문 청년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함께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 '길'을 만나기를 바랐다.

선배 스님들이 일군 뉴욕 도량을 이어가고 히말라야 순례길을 조성하려는 뜻도 같은 방향에 있다. 후학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고, 낯선 삶을 이해하며, 자신만의 원력을 펼칠 바탕을 마련하고 싶다. 근본을 놓치지 않으면서 익숙한 틀을 넘어서는 활발발한 용기, 그 힘으로 자신과 세상을 건강하게 바꾸는 수행자를 기다린다.

홍대 한복판에도 '길'을 찾는 청년들이 찾아왔다. 함께 살며 부딪히고 서로를 거울삼아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국내외 청년 12명이 인연을 맺어 발심출가를 결심했다. 고마움과 함께 선배로서의 책임을 절감한다. 초심이 흔들리지 않고 깊은 수행으로 자라도록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받쳐주는 일이 이제 우리의 몫이다.

승가장학회가 그 책임을 함께 나누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 교육·수행을 꾸준히 지원하고 어려울 때 기댈 도반이 되어주는 일이다. 후학에게 든든한 선배가 되고 후학은 어른을 믿고 따르되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화합승가를 꿈꾼다.

한 사람을 길러내는 정성이 불법승 삼보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힘이 되리라 믿는다. 이 인재불사에 사부대중의 따뜻한 관심과 동참을 청한다.

# 병역 혜택 논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세간과 출세간



이명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드라망연구소장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뜻밖에도 병역 혜택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남자 축구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뒤 몇몇 선수들이 올린 SNS가 계기였다.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는 상당한 시간과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다. 그런 상황에서 '병역 혜택'만을 생각했다는 이들의 발언은 일반 국민에게 박탈감과 불편함을 안겼다.

예술·체육 분야의 병역특례는 1973년 시작됐다. 당시 한국은 가난한 개발도상국이었고 북한과도 체제 경쟁 중이었다. 국제무대에서의 성취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업적으로 인정됐다. 5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자 문화강국이 됐다. 남북관계도 크게 달라졌다. 그럼에도 예술·체육요원 병역 혜택 제도는 여전히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이라는 논리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의 개선 혹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번 논쟁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병역 혜택은 체육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술 분야의 병역 혜택을 둘러싼 논란도 오래됐다. 병역 혜택 대상 대회의 권위와 국제성, 선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혜택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할까. 체육 분야는 주요 국제대회가 열릴 때마다 선수 개인의 병역 상황까지 언론에 자세히 소개되지만, 예술 분야는 그렇지 않다. 같은 제도이지만, 무엇이 얼마나 알려지는가에 따라 우리의 공정 감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불공정하다는 우리의 분노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체육 분야 병역 특례에만 민감한 반응**
**파편적 정보 바탕 분노에 질문 필요해**
**화쟁의 지혜로 편견 넘어 전체 살펴야**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경험과 언론을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 개인의 경험은 제한돼 있고, 언론도 모든 사실을 똑같은 비중으로 대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언론이 크게 보도하는 사건은 내 삶 깊숙이 자리 잡지만, 언론이 다루지 않는 사건들은 존재조차 희미해진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경험하고 보고 들은 파편적인 정보들이 '현실'이고, 그 현실에 근거한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는다. 그 옳다는 믿음이 어느 순간 '공정'이나 '정의'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확신의 강도는 더욱 강해진다. 그렇기에 '우리의 분노는 충분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불교가 한쪽 견해에 사로잡히는 것을 경계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믿는 순간 다른 조건과 상황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화쟁은 각자의 주장이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지를 살피고, 자신의 견해를 전체 진실로 절대화하지 않으면서 사안의 전체 모습을 보려는 노력에 가깝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충분히 살피기도 전에 분노가 먼저 커지고, 곧바로 공정과 정의의 이름으로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자주 본다. 분노가 크다고 그 판단까지 반드시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차분하게 사실을 확인하며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은 없는지 살피는 태도가 요청된다.

社 說

# 재난의 시대, 불교의 역할을 묻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다. 대형 산불과 홍수, 기록적인 폭염은 반복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재난은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며 피해자들에게 오랜 상처를 남긴다. 재난을 목도하는 이들도 고통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시대에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32주년을 맞아 '재난시대와 불교'를 주제로 특집 기획을 마련했다. 역사 속 재난에서 불교가 맡았던 역할을 돌아보고, 오늘날 불교계의 대응과 기후위기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재난은 생명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다. 생명존중과 연기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모든 존재의 상호의 존성을 강조해 온 불교는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창간 32주년 '재난시대와 불교' 특집호**
**시대 과제 짚고 실천 이끄는 언론 될 것**

이를 위해서는 불교계가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각 사찰과 단체는 환경보호 활동과 에너지 절감, 자원순환 등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과 캠페인이 개별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종단과 교구, 사찰과 불교단체가 협력해 지속가능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재난 문제를 불교의 수행과 신행, 사회적 실천을 연결하는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불교가 재난의 시대에 사회적 신뢰를 얻으려면 자비와 생명존중의 가르침을 현실의 문제와 연결해야 한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고, 재난의 원인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AI 공모전은 기술을 매개로 불교의 가르침을 새롭게 표현하고 더 많은 대중과 나누고자 한 시도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술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작자가 주제를 고민하고 장면을 구성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했다는 데 있다. 기술은 창작을 돕는 도구일 수 있지만,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의미를 전할지는 결국 사람의 몫이다.

'재난'과 'AI'라는 두 주제는 시대의 변화에 불교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재난 앞에서는 고통받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는 자비의 실천이 필요하고, 기술의 발전 앞에서는 인간과 생명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활용이 필요하다. 불교의 가르침은 과거의 유산으로 머물 때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때 생명력을 얻는다.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이래 32년 동안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지향하며 시대의 변화 속에서 불교의 역할을 묻고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교계의 실천을 조명하며, 우리 사회가 마주한 과제에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는 언론이 되고자 한다.

시대가 던지는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불교가 응답해야 할 과제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것. 그 답을 독자와 함께 고민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것. 창간 32주년을 맞은 현대불교신문이 다시 새겨야 할 언론의 소명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10월 21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10월 21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10월 2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